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조재현



지난 설날 전이었다. 이순재 선생님께서 주연한 강풀 만화 원작 '그대를 사랑합니다' 시사회가 있다

않다는 것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사 회장을 나오는데 이순재 선생님이 계신다

“배우 이순재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관객들로 하여금 70이 훨씬 넘는 나이를 모두가 잊고 그저 아름다운 사람이

영화는 개봉했고 첫 주 스크어는 전체 영화 6위로 출발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서 관객은 이미 100만을 넘어서었다. 노인 영화인 줄 알았는데 사랑 영화, 그것도 유쾌하고

우리는 고령화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나를 비롯한 중장년은 10~20년 후에 노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의 관객 추이를 보며 '그래도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

무엇보다 출연진 중 가장 연세가 많은 이순재 선생님을 통해 느끼는 게 많다.

현존하는 배우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령 선배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당신이 타고난 특정한 체력만이 이유가 아닌 것을 우리 후배들은 다 안다

이런 고령화시대에 생각과 마음이 젊은이보다 더 젊은 이순재라는 훌륭한 배우가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야겠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안보셨으면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신음하는 광주 푸른길공원 '치유' 급하다

'도시공원의 모범 사례'로 극찬을 받아온 광주 푸른길공원이 죽어가고 있다

푸른길공원은 지난 2002년부터 본격 조성되기 시작한 지난해 말 광주역 주변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는 것도 푸른길의 망가지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 북구, 동구, 남구 등 푸른길이

바닥 재질도 모래와 우레탄 등으로 자치구에 따라 서로 다르다. 나무데크나 벤치는

푸른길은 국내외에 그 사례를 찾기 못할 정도로 조성과정은 모범이 됐으나

그렇다고 광주의 대표자원이자 시민 건강의 보루인 푸른길공원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일반 농산물 친환경 둔갑 두고만 볼 건가

일반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중간 납품상의

학교 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은 지난 2004년 전남도가

일반 농산물의 친환경 둔갑은 유기농 가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저농약 농산물이 무농약 또는 유기농산물로

다. 단체급식 중간 납품업자들이 '박스 바꿔치기' 등을 통해

일반 농산물의 친환경 둔갑은 유기농 가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학교 급식 납품 농산물은 생산능력과 계약재배를 하거나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저농약 농산물이 무농약 또는 유기농산물로

의로 칼럼

강채미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곳곳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봄은 꽃놀이 등으로

갑자기 일교차가 심해지면 몸은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피로해지고

작하면서 밀폐된 공간에 날리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기기 쉽다

이와 함께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비염과 축농증은 성장장애 원

기고

강왕기



막바지 꽃샘추위다. 이 추위가 지나고 나면 이 산, 저 산, 그리고 이곳저곳에

그러면 사람들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자연의 품으로 파고들 것이다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한 봄맞이 특별전이다. '살아있는 자연', '재미있는 미술'

광주문화예술의 꽃을 피워내기 위한 작업도 한창이다. 광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

환절기엔 조심할 것 투성이

을 못 해 질병을 더 앓기 쉽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관지 천식 역시 일교차가 크고 차고 건조한 기후에는 기도 수축이 빈번해

일교차가 심하면 체온 조절이 어렵고 집먼지 진드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

인질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코에 이상이 생기면 미각에도 이상이 생겨

성장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왕성하게 분비되는데

일교차가 심하면 체온 조절이 어렵고 집먼지 진드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

우리 '문화마실' 떠나볼까요?

본의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의 대재앙을 가까이서 접한 우리들로서

이 봄, '자연마실'이 주는 행복감은 크다. 그러나 광주에선 그것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문화동네에도 벌써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의 상상강좌가

문화의 씨앗들은 또 있다. 얼마 전 시작된 광주시립미술관의 기획전

를 위한 공연 준비 등이 그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자산을 잘

어디 그뿐이라,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한, 지진피해가 극심한

여기저기서 문화예술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정부·지자체, 뇌경색 환자 등 재활센터 마련 했으면

작은아버지께서 7년 전 뇌경색으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후천적 장애에서 오는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다

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이용이 어렵고 환자들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정부가 지자체가 나서 이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현미·광주시 남구 백은2동

無等鼓. 김장훈의 만전.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

Table with 2 columns: 光日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editorial board.